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영남이공대학교, ‘AI물류교육센터’ 개소 기술 인재 육성 박차

2026. 7. 14.

- **CFS, 영남이공대 AI물류교육센터 현판식 AGV·소팅봇 등 오토메이션 실습 장비 제공**
- **2027년 영남이공대 ‘AI물류자동학과’ 신설 졸업 후 CFS 입사 시 가산점 등 혜택**
-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일학습병행과정’ 운영 올해 74명 입사, 내년 세 자릿수 채용**

2026. 07. 14.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영남이공대학교와 손잡고 AI·로봇 기반의 물류 기술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CFS는 14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AI물류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첨단 물류 인재 육성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설립은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MOU’의 실질적인 결실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영남이공대 이재용 총장과 대학 주요 보직자, CFS 정종철 대표, CFS 박수현 최고인사책임자를 비롯해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및 지역 특성화고 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AI물류교육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CFS는 이번 센터 개소를 기념해 학생들이 첨단 물류 테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 쿠팡 풀필먼트센터 현장에서 운용 중인 물류 자동화 장비를 제공했다. 지원 품목에는 수백 개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통째로 옮기는 무인운반로봇(AGV)과 상품을 배송지별로 빠르게 분류하는 소팅봇(Sorting Bot)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발맞춘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FS와 영남이공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는 2027년 개설을 목표로 ‘AI물류자동학과’를 신설한다. 학생들은 물류관리, 보관하역, 로봇제어, 산업안전, 생산품질관리 등 총 28개 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졸업 후 CFS 입사 시 가산점 혜택은 물론 개인 역량에 맞는 성장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일학습병행과정’도 확대한다. 전문학사 온라인 과정과 연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월 영남이공대 26학번 학생 74명이 CFS에 입사했다. CFS는 영남이공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내년 일학습병행과정 신입사원 모집 규모를 세 자릿수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AI와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함께 구축한 AI물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미래형 물류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영남이공대학교와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CFS는 지역 인재들이 물류 커리어를 쌓으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